

# 광주 길거리 응원 없지만...삼삼오오 '대~한민국'

## '이태원 참사' 계기 가족·지인 간 소규모 월드컵 응원전 호프집·치킨가게 등 월드컵 특수 "예약 차고 배달 늘어"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을 하고 첫 한국 경기가 열리는 24일 광주에서 대규모 길거리 응원전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월드컵을 응원하는 지역민들의 열기는 뜨거워 친구 또는 직장 동료끼리 '삼삼오오' 모여 집이나 식당 등지에서 한국의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고물가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월드컵 특수로 숨통을 틔울 것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우루과이전이 열리는 24일 밤 10시, 광주에서 대규모 응원전은 없다고 23일 밝혔다. 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서포터즈 '붉은악마'도 광주지역에서 계획 중인 단체 응원전은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 하늘공원, 전남대 후문, 광주월드컵경기장 등지에 설치됐던 대형 스크린도 이번 월드컵에선 볼 수 없게 됐다.

대규모 길거리 응원전 대신 가족, 연인, 지인, 회사 동료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응원전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대규모로 모이기보다는 소규모 응원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안홍민(23·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씨는 월드컵 기간에 거리에서 축구 경기를 감상하고 응원하기 위해 응원봉과 헤어밴드까지 준비했다. 하지만 대규모 응원전이 열리지 않아 조기축구 회원들과 함께 집에서 응원하기로 했다.

안씨는 "이태원 참사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조금 꺼려지긴 한다"며 "집에서 친한 대학친구 4명과 함께 치킨을 먹으며 응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 경기가 열리는 24일 회식을 하며 응원 계획을 세우는 직장도 있다.

직장인 이동근(30·광주시 서구 차평동)씨는 한국 경기 관람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한다는 소식에 기대를 하고 있다.

평소 스포츠 경기를 즐겨보는 이씨는 2020년 임시 후퇴근하고 직장동료들과 시원한 맥주를 마시

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길 기대했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번 회식은 자율참석이지만 8명 이상이 모이기로 했다"면서 "저녁 식사 후, 시간에 맞춰 치킨집에서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다"고 웃어보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소상공인들은 평일임에도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명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예년의 월드컵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벌써부터 월드컵 특수를 체감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조현욱(여·59)씨는 24일 단체석 예약이 마감돼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24일 첫 한국 경기를 앞두고 2층 100석 규모 단체 손님석이 모두 마감됐고, 오는 28일 열리는 가나전에서도 벌써 40명이 예약을 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닭도 평소보다 50% 이상 준비했다. 손님들의 경기 관람을 위해 밥 프로젝트 화질도 더 좋은 것으로 교체했다"며 "월드컵을 맞아 조금 숨통이 틔여 다행이다"고 말했다.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치킨집도 우루과이전을 앞두고 기대감이 들떠있다.

광주시 서구 유촌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신관섭(55)씨도 한국 경기를 앞두고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신씨는 "추운 겨울철에 경기가 열려 야외에서 손님을 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평소보다 매출이 1.5배 이상 늘고 있다"면서 "밤 11시30분까지만 주문을 받았는데, 분위기를 봐서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수능 끝난 학생들, 불법 스포츠 도박 주의보 휴대폰 접근 쉬운 사이트 우후죽순...중독 급증

수능시험이 끝나고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면서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휴대전화 등으로 접근이 쉬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중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치우센터(치우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광주·전남지역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20대들 중 도박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21.2%(2019년)→24.9%(2020년)→26.1%(2021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법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2018년에 2.7%에서 지난해 6.2%로 급증했다.

최근 광주 모 고교 3학년생 A(19)군도 치우센터를 찾았다. 도박에 관심이 없던 A군은 친구들

이 도박으로 돈을 뺐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한다.

1만원으로 10만원을 따자 도박에 쉽게 빠져 들었다. 용돈을 다 잃고 부모님께 손을 벌려 도박자금을 마련했지만 계속해서 돈을 잃자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빌린 돈이 500만원을 넘어가면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A군은 부모에게 사실을 말하고 치우센터에 문을 두드리게 됐다.

청소년은 발달 특성상 심리·신체적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도박 중독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치우센터의 분석이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도박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데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적인 공간에서의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도 도박 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태선 치우센터 상담사는 "도박문제에 시대가 변하면서 자연연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다회용품 씹시다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23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두고 가게에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전남도립대 이래서...교직원 기강해이 '심각'

전남도 추가 감사서 45건 적발

학교 허락도 받지 않고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하고 '연가'를 '출장'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게스트하우스를 자신들 숙소로 쓰면서 학생들 기숙사 비용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등 전남도립대 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구조조정 대상학교를 선정하면서 애초 평가위원회에 상정된 학과를 제외하거나 누락시키고, 연구 활동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연구실적이 있는 것처럼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부당한 업무 행태도 드러났다.

전남도는 전남도립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와 추가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45건을 적발해 13건(6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32건에 대해서는 주의·개선·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처리한

결계 안 받고 국외여행...연가 처리 생활관, 교직원 숙소로 변칙 운영 학교기업 운영 중단에도 거액 지원

도립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부적절한 업무 행태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도립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감사결과 드러났다.

도립대 직원 36명은 지난 2019년~2021년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공가를 받은 뒤 개인 용무를 처리하느라 무단으로 근무지를 벗어났고, 교수 등 8명은 결재도 받지 않고 공무 외 국외여행을 나갔다가 적발됐다. 특정 교수는 공무가 아닌데도, 연가가 아닌 출장으로 해외여행을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도립대 생활관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면서 외부인이 아닌 교직원들 숙소로 7개를 제공하는가 하면, 사용자도 학생들 생활관 비용(4개월·2인실 45만

원)보다 싼 값(6개월·1인실 45만원)에 이용했다.

또 지난해부터 학교기업 운영이 중단됐는데도,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한 학교기업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도립대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도 드러났다. 이미 폐과 승인을 받은 과를 구조조정 대상 학과로 편입시키면서 애초 구조조정 대상 학과를 제외시키는가 하면, 신입생 충원을 70%를 채우지 못해 구조조정 대상인 학과를 제외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같은 업무 처리로 인해 교육부의 기본역량평가에서 탈락, 국비 지원을 못받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규정과 달리 심사대상인 교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해 교원업적평가 대상이 '셀프 평가'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짙곰 비' 해갈 부족...저수율도 감소

광주·전남 2.7mm~10mm 그쳐

광주와 전남에 이틀간 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해 오히려 저수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의 저수율이 비가 오기 전날인 21일과 비교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오전 7시 기준 다목적댐 저수율은 주암댐 33.2%, 동북댐 28%, 섬진강댐 18.8% 등이다.

하지만 비가 오기 전인 22일 오전 주암댐은 33.4%, 동북댐 28.1%, 섬진강댐 19.9%로 비가 왔음에도 오히려 소폭 줄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주암댐에서 광주·전남에 하루 공급되는 용수의 양이 381인데 이를 동안 내린 비가 더 적어서 오히려 물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틀동안 광주 2.7mm, 해남 7.5mm, 신안 홍도 10mm, 완도 금일 5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다목적댐이 있는 순천(주암댐)에는 4mm, 화순(동북댐)에는 5mm의 비가 내렸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